

사라진 청년 일자리... 10·20대 근로자 신규 채용 '최저'

올 2분기 채용 145만 4천개 ... 2018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어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 '쉬웠음' 인구 1년 새 24만 5천명 증가

올 2분기 10·20대 청년층 임금 근로 일자리 신규 채용이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기업 신규 채용은 줄어든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등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웠음' 인구 역시 1년 새 24만5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10대·2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145만 4000개로 전년 동기(159만 개) 대비 13만6000개(8.6%) 줄었다.

지난해 채용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속 일자리가 전년보다 3000개 정도 증가한 160만 5000개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청년층의 신규 채용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솟점을 기록한 것은, 올해 청년 신규 채용이 최근 7년 간 가장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채용 일자리는 해당 분기 내에 이직 또는 퇴직을 했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뜻한다.

신규 채용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올 2분기 기준 10대·20대 임금 근로 일자리는 305만9000개로 전년 대비 13만4000개 감소했으며, 특히 국내소비 '내수'와 연결되는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의 경우 코로나19 당시보다 청년

신규 일자리가 더 적었고,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도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분야별로 보면 도·소매업에서 20대 이하 신규 채용은 올 2분기 기준 20만6000개로 전년 동기(22만1000개) 대비 7.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27만8000개에서 7.9% 감소한 25만 6000개를 기록했고, 건설업 역시 9만9000개에서 8만8000개로 11.1% 줄었다.

그나마 증가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22만7000개에서 21만7000개로 감소 전환했다.

다만, 청년의 신규 채용 등이 감소한 배경으로 양질의 일자리 및 채용 감소 추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업 의지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웠음'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지난 6일 '2024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통해 육아, 연로 등 별다른 사유 없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웠음' 인구가 전년 대비 24만 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쉬웠음' 인구 중 20대 이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 기준 18.0%, 10대(0.9%), 20대(17.1%) 등이다.

특히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20대의 경우 '쉬웠음' 인구가 43만8000명으로 전년(38만4000명) 대비 14.06% 늘었다. 이에 따라 20대가 '쉬웠음'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0.6%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 3차 회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등이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정 협의, 2025 의대 정원 여전히 '평행선'

의료계, 4가지 조정안 제시 정부 "현실적 수용 어려워"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가 추가 참여하는 방안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의 자율성 보장 문제와 관련된 논의에서 일부 접점을 찾았다. 다만 관심이 집중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 측 참여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내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고,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관련 문제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4가지 조정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조정안에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 담겼다.

아울러 의료계는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고,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계기구를 신설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정부 측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4가지 조정안 모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2026학년도에도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계 기구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정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당에서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과학기술원·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양은배 한국과학기술원 수석부원장·KAMC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전남도, 식품산업 2배 늘려 21조원 규모로

6년간 4조6900억 투자

전남도가 전 세계적인 'K-푸드' 열풍에 따라 식품산업 규모를 현재의 10조6000억원에서 21조원까지 성장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6년간 식품산업에 4조6893억원을 투입하고, 10개의 농식품기업 유치와 17억 달러 수출 등 구체적인 목표도 설정했다.

전남도는 24일 "2030년까지 추진하는 '식품산업 육성 추진계획'에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축산, 수산, 수출, 연관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5개 분야별 목표와 실행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농축산의 경우 쌀·양파·감·지·돼지 4개 품목을 미래 전략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쌀 가공업 생산·유통플랫폼 구축(사업비 32억원) ▲양파와 감지 육성을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28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구축(1800억원) 등으로는 2030년까지 463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무안과 함평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에 1조3463억원을 투입해 농식품산업 생산 기반도 확대한다.

수산 분야는 김·전복·넙치·조기 4개 품목을 미래 전략식품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립 김산업진흥원 건립(400억원)과 김 양식어장을 현재 6만2000ha에서 6만8000ha까지 10%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복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 수산물 국제인증(ASC) 확대(78억원) 등 2030년까지 216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구축(427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1137억원), 마린 김 대규모 물류시설 확충(600억원), 전복 유통상자 규격 단일화(199억원) 지원 등을 통해 수산식품 100만 달러 수출기업을 현재 60개에서 2030년까지 85개로 늘릴 방침이다.

수출 분야에선 온라인 수출플랫폼 확대(139억원), 해외 상설판매장 증설(82억원)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규모를 2023년 6억3000달러에서 2030년에는 17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주류 대형 식품마켓 입점 기업도 현재 4개에서 16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진핑 내년 경주 APEC 계기 방한 가능성 높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 얼른 만나자'는 말씀을 3~4차례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양 정상이 통화할 때 바로 옆에서 배석했다"며 설명했다.

그는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신 문제,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또 여러 나라가 사전에 만나길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임박 징후는 없지만 준비 단계"라며 "연말 이전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며 "여러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최신희 북한 외무

상이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21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방문한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이 평양 인근의 미신고 시설인 강선 단지로 보인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실"이라며 "농축시설의 현황이나 농축량 등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의장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쿠광 풀필먼트서비스(유)」 (재택근무) 취업 연계 **훈련생 모집** (접수 ~24.12.01(일) 까지)

쿠광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광의 계열사입니다. Coupage Fulfillment Services(CFS)는 물류센터(Fulfillment Center)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 모집 개요

- 사업체: 쿠광풀필먼트서비스(유)
- 훈련 및 취업직무

직무	주요업무	모집인원	근로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재택 사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포터링 업무 (주제별 데이터 수집 및 정리) - Call 업무 (쿠광 근무경험자, 지원자, 재직자에 게 목적에 맞춰 응대 후 내용 기록) * 업무교육 후 적정 업무에 배치 	8명	- 09:30 ~ 14:00 (오전) 또는 13:00 ~ 17:30 (오후) (오전, 오후 중 선택가능) ~ 주 5일, 일 4시간 근무

* 모집인원 미달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예정 인원보다 적거나 과잉이 취소될 수 있음
* 근무지(형태): 재택근무 * 고용방법: 면접전형 합격자는 맞춤형훈련 수료 후 채용 (훈련 기간 중 최종 적격 심사)

2 지원 자격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등에 해당되는 자
- 광주디지털훈련센터에 통학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
- 맞춤형훈련을 성실히 참여하고 근무할 자
- 인터넷, 엑셀(기초)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집에서 재택근무 환경(컴퓨터 또는 노트북 설치, 인터넷 가능, 엑셀사용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자
- 다음 (맞춤훈련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맞춤훈련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훈련 중 취업 및 치료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서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맞춤형훈련 참여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 (다만, 이공계정 방송대학 동산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범대학 학생은 맞춤형훈련 참여 가능)
* 맞춤형훈련 모집 공고일 현재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유지 포함)
* 맞춤형훈련 시정일 기준,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유지 포함)

3 훈련 후 입사 시 근로조건

- 고용형태: 계약직(최초 1년 계약,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1년, 무기계약 연장 평가 진행) * 최초 1년 계약 수습 12주 포함
- 근무시간: 09:30 ~ 14:00 또는 13:00 ~ 17:30(일 4시간, 주 5일, 30분 휴게시간)
- 급여수준: 월 108만원(통신비 포함,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복리후생: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임직원단체 상해보험(본인,가족 대상), 경조사지원, 명절선물, 종합건강검진(1년 1회), 쿠광캐시 적립/지급

4 전형절차 및 일정

서류 접수

▶

면접

▶

교육 훈련

▶

최종 평가

▶

입사

- 서류접수: 2024.11.06.(수) ~ 2024.12.01.(일) 20:00(이메일 제출) * 방문접수는 2024.11.29.(금)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2.02.(월) 17:00 이후 개별통보(문자 또는 전화) 예정
- 면접일자 및 장소: 2024.12.04.(수) 광주디지털훈련센터 *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관련 자세한 사항 개별통보 예정(면접시간 개별통보)
- 맞춤형훈련 합격자 발표: 2024.12.05(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 서류 검증 결과 탈락사유(허위 기재, 중형서류 미제출 등) 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 * 합격인원 미달 시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훈련기간: 2024.12.09.(월) ~ 2025.01.10.(금), 5주 (2.5주간-광주디지털, 2.5주간-재택실습)
- 훈련장소: 광주디지털훈련센터 및 재택
- 채용예정일자: 2025.01.13.(일). * 합격자발표, 면접일, 훈련기간, 채용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5 맞춤형훈련 기간 중 훈련생 지원

- 훈련비용 전액 국비지원 (훈련비, 교재 등) * 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 (최대 월 334,000원),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여부에 따라 상이함
- 식비(중식) 지원 * 훈련 중 상해보험 가입
- 훈련시간: 10:00~16:45 (2.5주 실무 통합훈련) / 13:15~17:00 (2.5주 재택실습, 웹캠 및 헤드셋 제공)

6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 제출서류: 맞춤형훈련 지원서(소정양식),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사진촬영 후 메일첨부 가능)
- 지원서류 다운로드: [방법1: 전화\(062-448-1188\) 또는 메일\(jkim77@kead.or.kr\)](#)로 연락 주시면 지원서 양식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방법2: 광주디지털훈련센터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gwdigital\)](#) - [카테고리\(훈련정보\)](#) 접속 후 다운로드
- [방법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메인화면에서 맞춤형훈련 모집 배너(이미지순차적으로 나타남) 클릭하여 다운로드 (또는 공단 홈페이지 - 직업능력개발 - 디지털훈련센터 - 광주디지털훈련센터 - 공지사항)
- [방법4: https://www.worktogether.or.kr](#) - 교육정보 - 교육훈련정보 접속 후 다운로드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jkim77@kead.or.kr) 또는 방문접수(광주디지털훈련센터) * 제출마감: 방문접수 2024.11.29.(금) 18:00, 이메일 제출 2024.12.01.(일) 20:00까지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 본문내용, 제출 파일명(이하)이 성명 표기 * 메일 제목 및 제출 파일명 예시) 쿠광풀필먼트서비스 인사지원서_홍길동 * 이메일 본문 내용이 없을 시 스팸처리 될 수 있음.

7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062-448-1188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68 KDB생명빌딩(당동) 19층(하하하 당동시장역 1번출구 400m)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지원상담 ☎ 062-448-1188**

광주 서구 천변로 268, 19층(당동 KDB생명 빌딩, 구 금호생명 빌딩)